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 | | | |
|------|-------|------|----|
| 모집단위 | 학부/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83년 여름 나는 잔스카르의 통데라는 마을에서 사회 생태학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팀을 이루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몇몇 교수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은 드센 어린아이들이 많아 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웃집에 부탁하여 방을 하나 더 구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양측과 돌마의 태도에 화가 났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게 그들의 태도는 부당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라다크 사람들에게 있어 최우선이 되는 문제는 ‘공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언젠가는 소남이 마을 목수에게 자기 집에서 쓸 창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소남의 이웃 사람도 그 목수에게 창틀을 주문했다. 소남과 이웃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의 집을 증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을 마친 목수는 완성된 창틀 모두를 이웃 사람 집에 갖다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소남과 주문했던 창틀을 받으러 목수를 찾아갔는데, 소남 몫의 창틀은 남아 있지 않았다. 목수가 만들었던 창틀이 전부 이웃 사람에게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소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한 상황이었다. 창틀 없이는 집 증축이 진행될 수 없었고 새로운 창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몇 주 정도가 더 허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남은 화가 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남에게 그 이웃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남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저보다 창틀을 더 급하게 써야 했나 봐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실수했는데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지만 소남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 올려 보였다.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배려는 라다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소남의 이웃 사람의 경우와 같이 누군가가 사회의 불문율이 되어 있는 미덕을 깨뜨리는 때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큰 관용뿐이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그와 같은 배려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짜인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共生)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相扶相助)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地衣類)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菌類)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藻類)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혼자만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 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공기 중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孢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다] 지구 시민 사회는 지구 시민의 생존 방식을 해체하고 있는 세계 사회와 그 규범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지구 시민 연대이다. 시장에 의한 지구화는 경쟁력을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인간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자연과 인간을 파괴한다. 마틴과 슈만은 그 심각성을 ‘20대 80의 사회’로 표현한다. 20%의 사람은 노동을 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80%의 사람은 노동과 소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 시민은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지구 시민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세계 사회의 시장과 투쟁하기 위해 지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정의일 것이다. 국가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규범이 ‘평화’에 근거하고 개인으로 구성된 세계 사회의 규범이 ‘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면 지구 시민으로 구성된 지구 시민 사회의 규범은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 사회에 대항하며 정의라는 가치를 따르는 지구 시민 사회의 모습으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아탁(ATTAC)을 들 수 있다. 아탁은 약 50개국에 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 금융 거래 과세 연합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NGO)의 속성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어렵지만 아탁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야당’으로 인식하며 자본에 의한 지구화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탁은 정치적인 것에 입각하여 세계 사회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 시민 사회는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 위협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태동한 지구 시민의 연대로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이야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의 모든 형태라 할 수 있다.

[라] 인류의 역사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반란 노예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큰 진전이었으며, 그러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대체로 새로운 세대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영화를 누리던 영주나 귀족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 변화를 막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걸쳐 역사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중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하나의 고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중세 체제를 지켜워했던 사람들 모두가 근대로의 이행을 환영하고 그 투쟁의 대열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시대가 끊이질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온다는 것은 일단 불안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 근대로 가는 길을 막는 저해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의 역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역사의 변혁은 인간에게 항상 불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속에서 끝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의 선구자입니다. 그들이 수레바퀴를 한 바퀴 앞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그다음은 내리막길과 같아서 많은 대중이 그 대열에 참여하여 역사를 밀고 나가게 됩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절대주의 치하에서 많은 대중이 고통을 받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주로 지식인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곧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진보적 인간이며, 그런 인간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은 대체로 상황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현상 유지를 바라는데 반해, 청년층은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 나가려는 미래 지향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마] 전통적으로 문명은 우수한 인종과 좋은 환경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문명을 역사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는 토인비는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은 홍수 피해가 적은 양쯔 강 유역이 아니라 홍수가 잦았던 황하 유역이라는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해 반박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은 열악한 환경의 도전에 대해 한 사회가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명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장이란 외면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지배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것이다. 환경은 다시 인간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 환경에 대한 지배의 증대는 정복을 통한 지리적 확대에 나타나고, 자연적 환경에 대한 지배의 증대는 기술의 향상에 의한 자연의 정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토인비는 문명 성장의 기준을 외면적 측면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자기 결정력의 증대라는 내면적 측면에서 그 기준을 찾는다. 자기 결정력이란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 집단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이들은 소수이다. 한 문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 소수가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명은 성장기를 맞는다. 이런 예로 토인비는 중세 초기의 유럽인이 노르만인의 침입에 대응하여 봉건 제도라는 강력한 군사적, 사회적 도구를 만들어 낸 사례와, 봉건 제도가 불합리한 모순을 드러냈을 때 주권 국가와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 낸 사례를 든다. 문명의 성장기에 비창조적 다수인 대중은 창조적 소수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은 지배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문명 성장의 기준이 창조적 소수의 자기 결정력의 증대라면 문명 쇠퇴의 기준은 그런 능력의 감퇴가 될 것이 뻔하다. 창조적 소수는 남이 풀어 놓은 해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자들이다. 토인비는 이들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여 사회 통합이 깨질 때 문명이 쇠퇴한다고 주장한다.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공존의 방식’을 비교하시오. [20점]
- 2) 1974년 인도 정부가 라다크 지역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개발 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라다크와 같은 공동체가 겪게 될 문제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20점]

2 역사와 문명 발전의 주체에 대한 제시문 [라]와 [마]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한 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지니 계수이다.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산출되는데,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로렌츠 곡선이 아래로 처질수록 소득의 불평등성은 증가한다. 지니 계수는 그림에서 $A/(A+B)$ 인데,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질수록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워지며 평등해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이 밖에도 소득 분배 상황을 알아보는 지표로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이다.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갑국과 을국 각각에서 동일 분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같다고 가정한다.

〈분위별 평균 소득〉

(단위: 천만원)

| 국가 \ 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갑국 | 1 | 2 | 3 | 4 | 5 |
| 을국 | 1 | 3 | 5 | 7 | 9 |

1) 위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표의 (1)~(8)을 채워 넣으시오. (소득 누적 점유율은 분수로 답하시오.) [10점]

| 국가별 \ 인구의 누적 비율 | 20% | 40% | 60% | 80% | 100% |
|-----------------|-----|-----|-----|-----|------|
| 갑국 소득 누적 점유율 | (1) | (2) | (3) | (4) | 1 |
| 을국 소득 누적 점유율 | (5) | (6) | (7) | (8) | 1 |

2) 위에서 그린 로렌츠 곡선의 형태와 지니 계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 중 어느 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갑국과 을국의 소득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을 각각 구하고, 각 지표별로 두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